

방전된 'KIA 배터리'

도루 저지율 0.095...9개 구단중 최하위
 김상훈·차일목 타율 1할대...공격도 부진
 '설상가상' 2년차 포수 이흥구 손등 부상

빈틈 많은 안방에 승리가 새고 있다. 잘 버티던 마운드가 흔들리면서 KIA 타이거즈의 승률이 떨어지고 있다. 위기의 마운드를 지탱해줘야 할 '안방마님'의 지원 사격도 어렵다. KIA는 올 시즌 약점으로 꼽히던 포수 포지션 강화를 위해 두 가지 육성책을 꺼내들었다. 하세베 배터리를 영입하면서 수비력 강화에 공을 들였다. 내부 경쟁을 통한 전력 강화

를 위해 캠프에서부터 라이벌 구도를 형성했다. 하지만 여전히 '안방 마님'들의 힘이 무겁다. KIA는 올 시즌을 김상훈·차일목 두 베테랑 포수로 출발을 했다. 선동열 감독의 구상과는 다른 선택이었다. 선 감독은 캠프에서 백용환과 이흥구, 김상훈과 차일목을 경쟁 관계로 묶었다. 경쟁에서 살아남는 이로 신·구 배터리를 구성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젊은 포수들의 강한 어깨와 패

기, 베테랑 포수들의 노련함과 투수들의 호흡이라는 조화로 수비력을 극대화 하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시범경기를 치르면서 신에 선수들의 실수와 배터리 호흡 등의 문제점이 보이자 선 감독은 '수비 우선'을 내세우며 과감한 변화보다는 안정을 택했다. 결과는 실망스럽다. 14연속 도루를 허용했던 KIA의 도루저지율은 0.095로 최하위다. 지난 10일 차일목이 넥센 이택근의 발을 묶으며 첫 도루저지에 성공한 뒤 11일에는 롯데 이승화도 잡아냈지만 12·13일 경기에서는 롯데 주자들이 4차례 베이스를 훔쳤다. 13일 3회 무사 1·2루에 있는 2루수 안치홍의 늦은 대처 속 차일목의 송구실책이 나오면서 쉽게 점수를 내주기도 했다. 투수들의 경험부족까지 겹치면서 KIA 배터리는 주자에게 번번이 텀포를 뺏기고 있다. 주지

않아도 될 점수가 속속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공격도 부족하다. 차일목이 8일 넥센전에서 팀의 첫 만루포를 터트리며 화끈한 한방을 선보였지만 22타석 만에 때린 첫 안타였다. 14경기에 나온 차일목의 타율은 0.143. 2개의 병살타로 기록했다. 김상훈의 타율도 10타수 1안타로 0.100에 그치고 있다. 두 형님들의 부진 속에 전력 손실도 발생했다. 가능성을 두고 지켜보던 2년차 포수 이흥구가 부상을 당하면서 전력에서 제외됐다. 이흥구는 지난 9일 상무와의 퓨처스 리그 경기에서 타격 도중 손등에 공을 맞으면서 골절상을 당했다. 생각만큼 풀리지 않고 있는 안방 고민. 흔들리는 마운드를 잡아주고 팀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잡아줘야 하는 안방까지 불안한 출발을 하면서 KIA가 위기에 몰렸다. /김여울기자 wool@

프로야구 주간 전망대

젊은피 수혈로 마운드 해법 찾는다

한화·SK와 6연전...4년차 한승혁 한화전 출격
 선발·불펜 운영의 묘 살려새로운 시너지 '기대'

위기 극복을 위한 '변화'가 새 동력이 될까? 15일 KIA 타이거즈 한승혁이 생애 첫 선발 등판에 나선다. 캠프인스 필드에서 열리는 한화 이글스와 홈경기가 한승혁의 첫 선발 무대다. 한화 엘브스와의 맞대결을 준비하고 있는 고졸 4년차 어린 투수에게는 기회와 설렘의 순간이지만 KIA에게는 예상하지 못했던, 위기의 순간이다. 한승혁의 선발 기용은 선발진 붕괴에 따른 선동열 감독의 변화의 수다. 두 번째 수이기도 하다. 홈런을 1선발로 내세운 선 감독은 양현종·김진우·송은범 토종 선발진에 임준섭·박경태의 좌완 경쟁을 통해 5선발을 채용 생각이었다. 그러나 김진우의 갑작스런 부상으로 제 1안의 구상이 틀어졌고, 대안으로 임준섭·박경태를 4·5선발로 해 시즌에 돌입했다. 예상보다 빨리 대안을 찾아야 했다. 기대를 모았던 박경태가 두 차례의 선발 등판에서 총 5.1이닝을 소화하는데 그쳤다. 자책점은 13점이나 됐다. 선발이 일찍 무너지면서 불펜까지 조기 가동되는 등 전체적인 마운드 운영에 차질이 빚어졌다. 결국 선 감독은 불펜에서 좋은 모습을 보인 한승혁을 선발로 끌어오는 두 번째 변화를 줬다. 한승혁은 지난 시즌 한 차례 선발 대기를 하긴 했지만 선발 등판은 하지 못했다. 입단 4년, 수술 복귀 후 3년 만에 찾아온 첫 선발 기회다. 본인에게도 중요한 경기지만 KIA의 운명이 갈릴 수 있는 경기다. KIA는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한화와 주중 3연전을 치른 뒤 주말에는 문학구장으로 가 3위 SK와 원정경기를 치른다. 정상 로테이션상으로는 15일 선발이 20일까지 두 차례 등판을 소화해야 한다. 15일 한승혁의 등판 내용에 따라서 선발 로테이션에 전체적인 변화를 줘야 할 지도 모른다. 또 한승혁의 소화 이닝에 따라서 한 주간의 불펜 운영의 수도 달라지게 된다. 재활군에서 벗어나 몸을 끌어올리고 있는 좌완 심동섭과 우완 박지훈의 복귀 시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한승혁 카드'가 잠재 분위기에 빠진 KIA 덕아웃에 새로운 에너지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프로야구 중간순위 (4월 14일 현재)

팀	경기수	승	패	무	승률	승차
1 NC	12	8	4	0	0.667	0.0
2 넥센	14	9	5	0	0.643	0.0
2 SK	14	9	5	0	0.643	0.0
4 롯데	11	6	4	1	0.600	1.0
5 두산	11	5	6	0	0.455	2.5
6 KIA	14	6	8	0	0.429	3.0
7 삼성	10	4	6	0	0.400	3.0
8 한화	13	4	9	0	0.308	4.5
9 LG	11	3	7	1	0.300	4.0



미국 무대 쉽지 않네

윤석민, 두번째 등판 4.1이닝 3실점



윤석민(볼티모어)이 두 번째 등판에서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지 못했다. 트리플 A 노포크 타이즈에서 뛰고 있는 윤석민이 14일 미국 살럿 BB&T 볼파크에서 열린 살럿 나이츠와의 경기에서 4.1이닝 6피안타 4사구 4탈삼진 3실점을 기록했다. 팀은 5개의 병살타로 0-5 영봉패를 당했고 윤석민은 패전투수가 됐다. 첫 등판보다는 구위·스피드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제구가 불안했다. 수비 도움도 받지 못했다. 1회말 선두 타자 고키스 에르난데스에게 안타와 도루를 허용했다. 투수 앞 땅볼로 원아웃을 만들었지만 헥터 히메네스에게 볼넷을 내주며 1사 1·2루. 맷 데이비스의 헛스윙 삼진 이후 3루수의 악송구로 2루 주자가 홈을 밟았다. 안타로 기록되면서 윤석민의 자책점이 됐다. 블레이크 테넷의 2루타로 시작한 2회, 연속 안타와 볼넷으로 무사만루에 몰렸지만 에르난데스에게 병살타를 유도하면서 1실점으로 막았다. 3회에는 월킨슨을 상대로 삼구삼진을 뽑는 등 8개의 공으로 삼자범퇴를 만들었다. 4회도 삼진으로 시작했지만 윤이 따르지 않았다. 살라디노의 땅볼 타구가 3루수 앞에서 크게 바운드 되면서 2루타가 됐고 적 시타가 나왔다. 윤석민은 5회 1사에서 4번째 볼넷을 허용한 뒤 강판됐다. 76개의 공(스트라이크 49, 볼 27개)을 던졌고 직구는 90마일(144km)을 기록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류, 상승세 이을까

18일 SF전 등판 3승 사냥



류현진(27·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오는 18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를 상대로 시즌 3승 사냥에 나선다. 다저스는 오는 16일부터 샌프란시스코 AT&T파크에서 열리는 원정 3연전에 조시 베크, 폴 마홀, 그리고 류현진이 차례로 선발 등판한다고 13일 발표했다. 류현진은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를 상대로 시즌 2승을 거둔 이후 5일 동안 쉬고 다시 마운드에 오른다. 류현진은 에이스 클레이턴 커쇼가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한 탓에 시즌 초반 6경기에서 3차례 선발 등판하는 과부하가 걸렸고 지난 5일 샌프란시스코와 홈 경기에서 2이닝 8실점이라는 부진을 맞았다. 하지만 이후 6일 동안 폭 쉬고 등판한 12일 애리조나와 경기에서는 7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했다. 다저스 돈 매팅리 감독은 지난 10일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와 홈 경기에서 11개월만에 메이저리그 복귀전을 치른 베크와 선발 등판에서 성적이 신통치 않았던 마홀을 선발 투수 로테이션에 포함시켜 류현진, 잭 그레인키, 그리고 덴 하렌 등 주력 투수에 충분한 휴식을 주는 방안을 선택했다. 샌프란시스코 원정 3연전에 이어 홈 10연전 등 13경기를 휴식없이 치르는 강행군을 펼치는 다저스의 경기 일정을 고려한 결정이다. /연합뉴스

since 1982

창업 32주년 국제보청기

www.kjhr.com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 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